

# 대선공약발굴, 도민 아이디어 특별공모

### 31일까지... '대단위 대선공약 발굴' 주제·광범위한 대상 선정·'세 문장제안' 도입 특징

전북도는 도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대선공약 및 도정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선공약발굴, 도민 아이디어 특별공모'를 31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도민의,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대단위 대선공약 발굴'이란 주제로, 도민뿐만 아니라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나온 제안을 대선공약 및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정유년 새해 사자성어를 '절문근사(切問近思)'로 정하고, '절실하게 묻고 소통하기 위한' 도정의 새해 첫걸음을 '대선공약발굴, 도민 아이디어 특별공모'로 시작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도정의 주요현안 및 역점방향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고자 매년 도민테마 제안 공모를 실시해 왔다.

임산부·노인 등 교통약자 편의 제공비탈길 지시대 효자 핸드레일 설치, 민원신청서에 불필요한 행정서류 구비 의무제출 규제개선 등은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표적인 도민참여 정책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도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불합리한 관행개선 등 단순민원성 제안에서 벗어나 조기대선이 가시화됨에 따라 전북도 100년 먹거리 발굴을 위한 대단위 대선공약 발굴이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선정과 도민, 학계, 도내 유관기관 등 광범위한 대상선정으로 대선정국에 기민하



새해 새출발 희망퍼레이드 송하진 도지사는 2일 도청광장 앞 도로에서 전북우정청장 및 관계자 등과 함께 우정청 2017 새해 새출발 희망퍼레이드 행사를 가졌다. <관련기사 6면>

게 대응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자칫 제안 작성 피로감으로 알맹이 없는 제안들의 범람 등 실효성 없이 종료될 수도 있는 제안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 문장으로 제안의 내용을 작성하는 '세 문장제안'을 도입하는 등 제안문화 확산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이번 제안공모로 발굴된 아이디어가 정당 및 후보자의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경우,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과 함

께 도지사 표창이 수여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채택된 아이디어들은 오는 6월 '도민제안 2차테마공모'시 병행 심사해 함께 시상 예정이며, 도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서 등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검토해 사업반영 및 구체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타캠 기획관은 "도민제안은 실제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

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도민 아이디어 소통의 장"이라면서 "전북도 정유년 사자성어 '절문근사'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도민제안 공모는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참여가 가능하며, 전라북도 공모전용 홈페이지인 '별별공리(http://idea.jb.go.kr)'에 온라인 접수와 우편,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인재용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안해

### 김승환 "교육계획설명회에서 학교장들에게 설명할 것"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일 전북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뒤, "오늘 6일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전북교육계획 설명회에서 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을 명확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한 시도교육청이 13곳이나 된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단위 학교에서 많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주무과에서는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편찬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보조교재를 현장에 빨리 배

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이 보조교재를 쭉 읽어 내려갈 때 작가 한 사람의 글을 읽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고 집필 수준의 편찬을 줄여 상당 평준화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의 논란의 발단은 '대입 수능 시험에 국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다"면서 "그때 정권 내에서 누구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헌법 31조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용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동인권교육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은 기자

## 문재인 "국민의당 민주정부의 후예... 힘 모으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때 조금 길어 어긋났고 그 결과 당이 다르게 돼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다 함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 민주정부의 후예"라며 전날에 이어 이렇게 국민의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 대선 과정에서 힘을 모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함께 힘을 모아서 제3기 민주

정부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호남 민심이 요구하는 게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모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통합을 재차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의 연대설에 대해서 "요즘 일각에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비박과 연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호남 민심과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믿는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뉴스1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출마 "큰 판 만들 것"

당 대표에 출마한 박지원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는 2일 "이번 대선에서는 큰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전 원내대표가 구상하는 이른바 '큰 판'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국민의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겠다"라며 "(난)이기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제는 대선정국이고, 큰 판

을 만들어 흔들어야 한다"라며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사람으로 가야하는 만큼 안철수와 천정배·손학규·정운찬·반기문 등 경선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국민의당의 정신을 인정하고 호남의 정체성 등을 인정한다면 환영"이라며 "검증과 이념 등을 내놓지 않아 반총장에 대해 현재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단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정책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 전북 2개 공동체 '자율관리사업 선진공동체 특별사업' 선정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자율관리사업 선진공동체 특별사업'에 전국 7개 공동체 중 전북의 2개 공동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선진공동체 2개소(고창 하전, 부안 치도)에는 공동체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4억원이 지원된다.

고창 하전 선진공동체는 수산물 세척기, 선별기, 포장기, 냉동냉장시설 등을 갖춘 바지락·로컬푸드 처리장 및 판매장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부안 치도공동체는 기존 노후화된 김 가공공장을 리모델링해 치도 공동체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위도섬 바지락, 굴, 김에 대한 가공설비, 저온저장시설, 공동작업장 등을 갖춘 현대식 수산물 가공공장기반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인재용 기자

## 중앙공모사업 국비 확보로 시책 사업 탄력

### 지난해 144개 사업 선정 전년 대비 6.5% 증가한 4206억원 확보

전북도는 지난해 중앙공모사업에 총 144개 사업에 선정돼 4,20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전년실적(3,948억원) 대비 258억원(6.5%)이 증가한 금액이다.

그간 선정된 중앙공모사업의 연도별 국비확보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3,260억원, 2015년에는 3,948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4,206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국비는 전북지역의 성장동력에 필요한 필수재원으로, 지역성장을 견인하는데 큰 밑거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이와 같은 중앙공모사업의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는 초기 준비단계부터 공모단계까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단계별 대응방법, 방침결정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와 도, 시군, 대학, 연구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과의 상시 발구체계를 유지해 수시 공모사업의 신속 대응, 지방비 매칭 공모사업 증가추세로 인한 지방비 부담 가중에 따라 공모사업 응모 필요성에 대한 도 자체의 종합안 및 주요업무보고 자료 등을 분석해 실국별 소관부처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수시 공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39건, 1,208억), 토탈관광 및 문화체육 분야(39건, 333억), 탄소산업 및 성장동력 분야(14건, 576억), 일자리창출·고용안전 분야(13건, 223억), 환경·안전·복지 분야(24건, 1,268억), 기타(15건, 596억)로 나타났다.

중앙공모사업 국비 확보로 민선 6기 도정방향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의 핵심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북도는 올해 중앙공모사업의 발빠른 대응을 위해 부처별 예산안 및 주요업무보고 자료 등을 분석해 실국별 소관부처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수시 공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